70년대 이후 비판적 현실인식 강화된 소설

경희가 낳은 여술인

문화시리즈—소설 평론 (下)

동인지 '작법' 활동, 사회의식 확장과 역량 높여

부진했던 평론부문도 신진세력 형성으로 발전보여

1970년대 초반 이후에 수학한 작가들은 그 이전의 선배 작가들보다 비교적 양호한 조건의 토양에 그들의 문학적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지난호에서 살펴본 바 경희문학 상반기 20여년의 선행 실적이 유익한 참작의 대상이자, 동문수학의 지근한 교유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격려를 전해주는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경희문학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면서 구성원들의 층위를 두텁게 하는 한편, 각기 개인의 기력이 약해질 때 이를 부축해 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했다.

시 동인그룹 '시운동'과 소설 동인그룹 '작법'의 결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상호간의 개성적인 창작방식을 존중하면서 함께 의욕을 고무하고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하재봉·박덕규·이문재가 중심이 되어 문학적 상상력을 언어로 조탁하면서 문단 내부에 간과할 수 없는 세력을 형성한 '시운동'과 더불어, 이유범·고원정·유재주·이연철이 순문학의 질서와 모국어에 대한 사랑으로 사회의식을 확장해 간 '작법'의 소그룹운동은, 동인지 스스로의 성과와 작가 개인의 역량을 북돋우는 유익한 바탕이 되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1970년대의 시대적 상황은 제3공화국의 폭압적 독재권력이 사회의 각 분야마다 삼엄한 통제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형편이었고, 그러한 족쇄가 풀려 나가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는 젊은 동문 문인들의 작품이 더욱 확고한 비판적 태깔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이산하의 장편서사시 '지리산'이나 고원정의 대하장편 '빙벽'을 통하여 이를 쉽사리 증명할 수 있거니와, 그 이후의 신진들에 있어서는 생생한 현장문학의 요소들이 직접적으로 도입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전반적인 외양을 훑어보기 위하여, 먼저 '작법' 동인의 좌장격인 이유범(국문과·24회)에서 출발하기로 하자.

이유범은 1985년 한국문학 신인상에 단편 '얼굴내기'가 당선되었고 198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평론 '이인칭 소설의 정체와 그 주변'이 입상하여 문단에 나왔다. 그는 진지하고 끈질긴 작가이다. 선택된 제재에 접근하는 철저한 장인정신, 잊혀져가는 우리말을 자신의 문장속에 되살려 놓으려는 계속적인 노력, 소설구성의 기본적인 자재이자 보편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인 말에 대하여 그 진실성의 정체를 소설문법으로 정초하려는 끈질긴 싸움, 소설의 원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때로는 과감하게 실험성이 짙은 작품 제작의 시도 등 여러 항목에 주목할 때, 그의 진지함과 끈질김은 앞으로도 그의 세계가 만만찮은 성과에 이를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말에 대한 작은 성찰'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장편 '섬에서 섬으로'와 중편집 '거미줄 끊기'같은 작품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언어의 사회학적 고찰이나 끈끈하고 치열한 자의식의 세계가 두드러져 있는 한편, '바다꽃'처럼 체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청청하고 순후한 인간애를 표방하는 세계도 그의 이름에 한 몫을 거들고 있으니, 기실 이유범은 작품의 수준에 비해 객관적 평가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 상황에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동문 평론가들의 책임에 속하는 일이기도 하다.

고원정(국문과·26회)은 지난 호에서 언급한 문예장학생 출신으로 오랜 수업기간을 거쳐 1985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거인의 잠'이 당선됨으로써 문단에 얼굴을 내밀었다.

80년대 중반부터 비판적 색깔을 띠기 시작해 이후 현장문학의 요소도입이 두드러져

그의 작품활동 궤적을 뒷쪽에서부터 살펴보자면, 모두 10권으로 완간을 앞두고 있는 대하장편 '빙벽'과 1992년 한국의 정치판도를 가상정치소설로 꾸민 단행본 3권 분량의 '최후의 계엄령'으로 인해 그는 현재 우리 문단에서 가장 주목받고 촉망받는 작가의 한사람이 되었다. 그외에도 그에게는 창작집 '거인의 잠'과 '칼 한자루의 사상'이 있고 작품선집 '비둘기는 집으로 돌아온다'와 몇권의 꽁트집이 있다. 고원정의 작품 내면에서의 가장 강렬한 빛을 발하는 부분은, 전체주의의 무서운 폭압에 자유로움의 저항정신으로 대응하는 정치적 알레고리의 소설적 특성이다. 이를 잘 나타내는 작품들이 공유하고 있는 첨예한 주제의식이나 대칭적 구도 및 부인물의 시각활용과 같은 강점들은, 지금까지의 우리 문학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격렬하면서도 또 치밀하다. 그리하여 고원정은 가장 동시대적인 작가이면서, 또한 동시대의 쟁점들이 지닌 본질적인 성격을 잘 그려내는 작가임에 틀림없다. 정치권력의 파행성에 단도직입적인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 그의 작품은, 저항과 부정의 정신이 제 음색으로 현장의 존재증명을 발휘할 수 없는 세계의 무서움을 지속적으로 걷어올리는 작업이며, 향후 사회상의 변환과 더불어 어떠한 전개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가 주목된다.

이연철(국문과·27회)은 1984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그리운 꿈'이 당선되어 작가의 길에 들어섰다. '투모로우'라는 제목의 소집을 간행한 바 있으며, 처음에는 무겁고 암울한 분위기를 동반한 단편들을 쓰면서 인간의 심리적 기층에 잠복해 있는 의식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주력했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결코 믿을수 없는 불가해한 대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오히려 가혹한 환경조건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온정의 불씨를 되살려낼 수 있다는 낙관적 조망을 일구어 냈다. 대기업 홍보출판 부서와 현실정치의 한복판인 국회에서 일한 경험이 근래에는 조금씩 소설로 변용되고 있으며, 매끄러운 문장과 스토리를 꾸려내는 능력으로 미루어 볼 때 넉넉하게 자기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작가임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유재주 (국문과·30회)가 있다.

1984년 소설문학 신인상에 '겨울비'가 당선되어 등단한 유재주는, 작품집 '또 하나의 계곡'과 '어머니의 초상'을 내놓은 바 있으며 지난해 연말 야심적인 장편소설 '북극의 신화'를 출간하여 자신의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 한때 역사문화의 저술을 다루는 일에 종사한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작품들은 역사의 갈피속으로부터 들추어 낸 실재하는 사건들과 유연한 상상력에 의해 윤색된 허구적 사건들이 잘 배합되어 있으며, 이 문맥의 균형성을 능숙하게 조절하여 주로 과거의 사실을 현재의 서술구조 안에 효율적으로 갈무리하는 기량을 보여준다. 특히 '북극의 신화'는 한국·일본·중국·시베리아를 배경으로 독립군·마적·사냥꾼 등의 행적을 그리는 세 젊은이의 파란만장한 삶을 부각시킴으로써, 근대사 최초의 민족상잔인 자유시 사변과 유실된 독립운동사를 복원하는 한편 운명적인 사랑의 비극을 감명깊게 형상화하였다.

다음으로 하재봉 (국문과·28회)이 있다. 그는 198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유년시절'이 당선되어 시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안개와 불' '비디오! 천국' 등 2권의 시집을통해 물질적 상상력을 동원한 인간존재의 탐구, 그리고 물질문명에 오염되어 가는 정신에의 날카로운 해부 등속의 평가를 받아왔다. 이미 시인으로서 안정된 이름을 가진 그가 올해 초 문예중앙 '신인상'에 중편 '318W. 51st ST'가 당선되고 이를 개작하여 장편 '콜렉트 콜'을 펴냄으로써 소설가로 변신하는 새 기치를 들었다.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의식을 포스트 모더니즘 기법으로 추적한 이 작품 외에도 그가 여러 편의 소설을 이미 탈고하고 간행 중에 있어 주의깊게 관찰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김형경(국문과·30회)을 말할 차례이다. 김형경 역시 적지않은 시를 써왔고 '모든 진실은 다르다'라는 시집을 낸 바 있으며, 근자 그동안 써온 소설을 묶어 '단종은 키가 작다'라는 작품집을 냈다. 소시민들의 허위의식과 안일지향성에 비판적 분석의 잣대를 갖다댐으로써, 그는 표면적인 현실의 속 깊이에 숨어있는 진실성의 의미를 구명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면을 작가들의 개괄적인 면면을 검색하는 데 사용했거니와, 평론의 경우에는 시와 소설에 비해 한결 그 부피가 작다. 일찍이 신봉승(국문과·9회), 김해성(국문과·6회), 김영석(국문과·16회), 이유범(국문과·24회) 등의 동문이 평론으로 등단한 바 있으나 지속적인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에 신춘문예나 문예지의 추천으로 등단한 선덕룡(국문과·27회), 김종회(국문과·30회), 박덕규(국문과·30회), 하응백(국문과·31회), 신현철(국문과·40회) 등의 신진 평론가들이 우리 문단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일반 저서와 평론집을 내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현대문학연구회를 결성, 매주 모여서 문학이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등 열성을 보이고 있으며 문단에 유수한 이름을 가진 현대문학 담당 교수들의 지도를 받아 날로 세력의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창작부문의 풍요로운 수확을 뒤쫓아 가면서 또 그동안에 쌓아올려진 경희문학의 창작성과에 온전한 해석과 평가의 뒷받침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할 터인데, 이는 이제껏 경희문학이 안고있는 긴요한 숙제의 하나이다.

김 종 회
〈문학평론가·문리대 강사〉

◇경희문학이라는 거대한 흐름속에서 동문문인들은 개별적인 작품세계로 조화를 이루었다

예민한 감수성으로 열사의 죽음 그려

투쟁현장서 느낀 생생한 감동의 시

독자투고

난 밥을 먹고 너는 흙을 먹고

—최은희 시인의 "희망이 있는…"를 읽고

'새벽 다섯시/ 까맣게 타버린 딱딱한 네 입술에/ 내 입술을 맞추어 나는 작별을 한다/ 울지 않으리라/ 지금 소리없이/ 모두가 잠든 새벽 이렇게 작별하리라/ 어머니 아버지는 새벽 미사에 가고/ 간호원 의사도 없는 시간 딱딱한 네 입술을 내 혀로 문지를 때/ 네 입에서 흐르는 진물도/ 내 겐 따뜻하고 아름다워라/ 마지막 아침 나의 어린 누이여' ('마지막 아침' 끝부분)

폭압의 정치 권력과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백골단의 무지막지한 폭력에 강경대가 죽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온 몸을 불사른 박승희도 이렇게 죽어갔고, 죽어가는 박승희 옆에서 가슴 여린 시인 최은희는 또 이렇게 죽음을 목격했다. 그것은 충격이었다. 한반도의 남도 광주에서 일어난 그 불길은 분명 충격이었고 국민은 분노에 또 다시 치를 떨어야 했다.

자취방 동료이면서 선배였던 최은희에게 그 충격의 강도는 더 컸을 것이라 짐작된다.

자취방의 동료가 시꺼멓게 타 죽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 최은희는 시를 썼다.

이 시들이 바로 '희망이 있는 고통은 아름다워라'에 실린 시들이다.

최은희 시인의 시에 비친 그들의 자취 생활은 고달프지만 끈끈한 정으로 벽지를 두른 듯이 행복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승희가 죽음을 결의하고 목포의 어머니를 만나러 간 일요일의 풍경을 최은희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일요일의 아침 밥상은 풍족했어/ 왜 그날 아침 나는 미역국을 끓였을까/ …(중략)…/ 김치통을 들고 집에 가는 너를/ 대문 밖에서 바라보며 나는 웃었지/ 가다 되돌아 와 갖고 싶은 게 뭐냐고/ 용돈 타서 언니에게 해주고 싶다던 너에게/ 김치통 가득 열무김치를 담아오라고 웃었지/ 그렇게 평화로운 아침이었어…' ('일요일 아침 목포로 가던 네 뒷그림자'중)

'열무김치를 담아오라'는 최은희 시인과 몇푼 되지 않는 용돈으로 뭔가를 사주고 싶다는 두사람의 정이 확 느껴진다.

그러나 죽음의 소식은 더욱 가까워지고 마침내 시내버스 속에서 박승희의 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시인은 '미친년처럼 울며 뛰어 병원'에 다달았지만 자신의 동료였던 박승희는 이미 '눈도 입도 코도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병실에 누워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박승희가 죽어가고 있는 동안에도 참으로 많은 사람이 또 죽어가고 있었다. 지난해는 그런 해였다.

박승희가 참으로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죽어갔음에도 시인 최은희는 그녀의 죽음-부재-를 곧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그 부재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은 우선 시인 자신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던 사람이 죽었다는 의식과 죽음을 부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시인의 각오 때문인 듯하다.

따라서 최은희 시인이 박승희의 부재를 확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게다.

'승희야/ 이제 네가 보고 싶으면/ 어디에다 대고 승희야 하고 불러/ 네 얼굴을 찾아야 하니…'

박승희와의 사별은 '나는 밥을 먹고 너는 흙을 먹'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극단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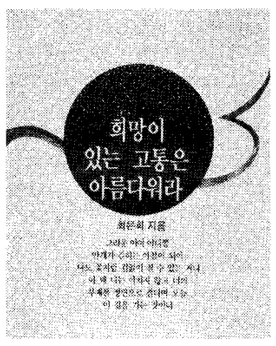
이러한 박승희의 부재와 그 부재에 직면한 슬픔은 최은희 시인의 시집 '희망이 있는 고통은 아름다워라'를 한 순간에 내리닫이로 읽어나갈 수 없게 한다.

시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형언하지 못할 고통과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최은희 시인은 손톱으로 툭 튕겨도 깨질 것같은 감수성을 가진 시인이다. 그의 맑고 고운 심성은 이전에 발표된 시집 '쑥고개 편지'에도 발현되어 있지만 이번 시집에는 차라리 무섭다고밖에는 표현 못할 죽음의 현장을 시인은 눈 한번 돌리지 않고 바라보고 있다.

이 글이 전문적인 서평이 되지 못하고 하잘 것 없는 감상문으로 그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여학생의 죽음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필자의 마음 아픔과 함께 죽음의 현장을 그대로 담아놓은 시집에 조차 함부로 바라보지 못하는 필자의 무능을 탓할 뿐이다.

◇이 시집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과 슬픔이 복받쳐 한순간에 내리닫이로 읽을 수 없게 한다



우리는 이 시집에 이르러 한 편의 시를 평한다는 것, 그리고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없는 일인가를 알게 된다. 이 시집은 우리에게 논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칼로 무 자르듯이 할 수만은 없다는 말이다. 이 시집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슴이 벅차다. 더 이상의 설명도 이제는 무의미하다.

봄 꽃이 피기 전에 한번쯤 크게 울면서 죽은 박승희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시인 최은희를 만나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 성 수
〈동문·시인〉

시사영어사 직영
현대 시사어학원
TOEIC 강좌개설
대학생·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中国語
●TOEFL ●TOEFL L.C. ●TOEIC ●GRE ●AFKN청취 ●TIME ●Voc. 22,000 ●Word Power
●영어실력기초 ●성문기본영어 ●성문종합영어 ●영어순해 ●영작문연구 ●실전수험영어 ●영어회화(한국인) ●영어회화(미국인)
●일본어 초·중·고급 ●일본어 초·중·고급회화 ●일본어 독해 ●NHK청취 ●중국어 초·중·고급 ●중국어회화 ●스크린 중국어
개강 4월1일 수시등록
파고다공원 정문앞 (주)시사영어사 본사 뒤
(273)4395~7/5081~2

軍·행정병 모집
육군 참모총장 위촉처
1. 행정병 주특기 부여
2. 매월 단독입영
3. 6주훈련후 상급부대 배치
4. 고졸이상(17세-26세)
※유사 학원주의
●사무자동화(OA)병
●차트(일반행정병)
●사무타자행정병
관인 인성학원
730-6946~7
(종로 1가 무과수제과2층)
관인 유니사무타자행정학원
735-2323,9716
(종로 1가 제일은행 옆)

英·日·中·独·佛·西語
고려 외국어 학원
외국어교육의 센터
BE WINNERS
대표전화 739-8000, 7000, 6000
YMCA 건너편 양우당서적코너 빌딩

강의실에서 배울 수 없는 경영현장의 값진 체험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경영학은 미국에서 발달된 학문으로 사회적 전통이 다른 우리나라 기업경영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습니다.
이 책에 실린 대부분의 글은 선경그룹 최종현회장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요령을 실무차원에서 가식없이 풀이한 것으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문경영인이 되고자하는 젊은이들에게 소중한 지침서가 될것입니다.
주요내용
• 기업경영에는 원칙이 있어야한다
• 남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해야 돈이 벌린다
• 우리만 만들수 있는 상품은 불황을 모른다
•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
• 첨단기술만이 기술이 아니다
• 상식적 발상은 상식선에 머문다
• 글로벌리제이션에 대비한 경영전략
• 부록으로 첫공개되는 선경의 독창적인 경영기법 SKMS(Sunkyong Management System)
발행 : 한국기업문화연구원 (711-2876)
많은분들의 문의전화가 있었습니다. 책의 총판은 을지서적 (전화 : 757-8991~5) 이며, 지금 전국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